

70대동맹결정. (수의계약 최고가 입찰)

◎ 박근혜 - 법원

1. 소비조합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의 배경

국유재산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의 개정(96.6.15 및 97.2.17)에 의해 국립대학 소비조합의 전매장에 대해 사용료를 최고 입찰가로 결정하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라는 교육부의 공문 (총무 45526-52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처리 지침 통보)이 내려왔음

이에 대학본부는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도 교육부의 지침이라 어쩔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로 임대기간이 끝난 1,2생 식당을 포함한 18개 소비조합 매장에 대해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

√ 2.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의 문제점

★ 업자선정시 구성원의 의사반영과 참여가 배제되는 점

단순히 최고가액을 제시한 업자가 선정되며 그 과정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 우리대학의 후생복지가 후퇴하는 문제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업자가 학교에 내왔던 발전기금이나 후생복지 기금으로 재투자되어왔던 복지사업들이 축소, 후퇴될 수밖에 없다.

★ 판매가격의 인상과 각 매장의 파행적 운영이 예상되는 문제

우리대학 내로 들어오기 위해 업자들은 적정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이럴 경우 가격의 인상과 질 저하, 서비스의 부재는 뻔한 사실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일부대학에서는 너무나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자가 경제성이 맞지 않아 매장을 포기함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들이 당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대한 문제

3.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 각 대학 사례 조사 및 총학생회 입장정리(10월)
- 30대 총학생회 입장발표(11월)
- 경북, 전북, 부산, 전남대 총학생회 공동 성명서 채택(11월 말)
- 본부 학생처장, 부처장, 사무국장, 경리과장과의 면담
- 31대 총학(건)의 입장발표 (12월 중순)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30대 총학생회와 31대 총학생회(건)의 최고가 입찰 철회요구의 입장을 확실히 밝혔으나 타대학과 교육부의 상황을 지켜보는 몸사리기식 행정을 펼치던 대학본부에서는 학우들의 힘과 의견이 수렴되기 힘든 방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12월 말 공개 입찰공고와 함께 99년 1월 중순에 최고가 공개입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31대 총학생회(건)의 요구

- ★ 대학본부는 최고가 낙찰에 의한 공개입찰을 철회하라
- ★ 소비조합 이사회 내 학생, 교수, 교직원 각 5인이상으로 구성된 선정, 관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공개입찰을 6개월간 유보하라.

★ 낙찰하므로 최고가 입찰 → 공고. 낙찰 배정기금으로 본연의 임계점 대학

5. 중심구호

- 대학본부는 최고가 낙찰에 의한 공개입찰을 철회하라.
- 교육부는 최고가 공개입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 소비조합 이사회내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
- 소비조합에 대한 공개입찰을 6개월 유보하라.
- 돈이면 전남대학교도 살수 있다?! 최고가 입찰 반대한다.
- 대학본부의 몹사리기식 행정을 반대한다.
-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입찰을 요구합니다.
- 3000만원짜리 공대 복사실!! 돈이면 다 되는가?

6. 소비조합의 최고가 공개입찰 철회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1) 철회요구의 의의(중점 사항)

- ★ 최고가 공개입찰의 폐해를 학우들에게 알리고 소비자협동조합 공개입찰 문제를 issue화 시킨다
- ★ 공개입찰이 issue화 되고 있는 타 대학과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좀더 배가시킨다
- ★ 31대 총학생회의 첫 번째 사업이므로 꼭 생취해서 본부측과 학우들에게 총학생회의 힘을 보여 준다

2) 추진계획

- ★ 대자보 선전단(문예 체육 위원회) : 수시로 상황 전파, 조형물선전도 구상
- ★ 천막 농성단(부회장, 학복위) : 본부앞 천막농성
- ★ 소협, 식당 폐쇄(사무국장) : 적당한 가격의 상대 뒤 식당 섭의를 통해 최대한 학우들의 피해를 줄인다. *→ 계대 서리기전에 더관화를 시켜야겠다.*
- ★ 학우들의 참여유도(자봉단): 대자보 직접 쓰기 등의 다양한 방법 고민
- ★ 기자회견(회장):성명서 발표

3) 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0일:대자보 선전 및 천막 농성시작	31일	1일	2일	3일
4일	5일 : 소협, 식당 폐쇄 및 기자회견	6일:소협 및 식당 폐쇄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 소협 및 식당 폐쇄	13일:소협 및 식당 폐쇄	14일	15일	16일	17일

* 공개입찰 날짜?

→ 입찰 유보 요구

* 대자보 선전 및 천막 농성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 될 때까지 할 것이다

↓
76행하면
막아내야...

7. 맺으며

31대 총학생회(진)의 첫사업이라 할수 있는 소비조합의 최고가 공개입찰철회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대학본부에 의해 밀리게 된다면 학우들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며 이는 총학생회의 교섭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으며 99년 1년 사업을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으로 작용할것이 사실이다.

또 임대매장의 업자선정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전 국립대 차원의 문제이며 또한 대학본부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본부 경리과에 하달된 교육부의 공문에 의해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이 대학본부와 학생들간의 심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모든 대학이 서로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한할 때 이러한 교육부의 일련의 조치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탁상행정이며 대학을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학우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내지 못한다면 총학생회와 본부와의 문제만의 문제로 비취질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